

'기업 사회공헌' 젊은 총수들 변화 물결 주도

기업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말로 이윤 창출, 법률준수,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주요 4가지로 구분된다. 과거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 추구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최근 기업이 '사회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사회적 주체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2018 주요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업 1곳당 평균 사회공헌 관련 지출 규모가 137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06억8,768만원에 비해 28.7%나 성장한 규모다.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2013년부터 4년간 역성장을 거듭하다. 2017년 들어 급증한데는 기업 전반에 사회공헌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업 총수들이 젊어지면서 딱딱한 회장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학활동, 소외계층 후원 등의 전통적인 방식은 기본으로 사회적 책임(CSR) 조식을 꾸리고 활동에 나선지는 오래됐지만 총수들이 전면에 나서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강조한 것은 최근에 두드러진 흐름이다. 또한 젊은 총수들에 의해 기존 사회공헌의 틀을 깨고 방식과 아이디어에서 독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 총수 중 사회공헌에 가장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

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보아오 포럼, 일본 니케 포럼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을 나누며 전세계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사회공헌 새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Enabling People)'을 발표하고, 특히 '청소년 교육'을 새로운 테마로 제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미래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라는 중장기 비전을 선포하고 그룹 통합 사회공헌 체계 구축과 함께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청년 및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과 자립을 돕는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5060세대인 신중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구광모 LG 회장도 "그동안 성과의 기반이 LG가 추구해왔던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와 함께하는 LG'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노력할 것을 밝혔다. **KAA** 임영화 05bokee@naver.com

(표) 기업 사회적 가치 실태조사



*자료 :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205개사 분석(2017년 기준), 전경련